



시한부 종말론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최근 우리 사회에 관심을 끄는 두 개의 종교행사가 있다. 통일교 신자 3만쌍이 합동결혼을 하므로써 세계적 화제가 되었고(양돈인 대회가 1,200여명 모이고, 여의도 광장에서 농민대회를 할 때 전국에서 모여야 2~3만명임을 생각해 보면 된다), 또 하나는 다미선교회를 중심으로 한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광신자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가정을 버리고 광적인 신앙에 빠져버리는 것이다. 둘다 개신교에서 나간 이단종파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이 파괴되는 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시한부 종말론이란, 1992년 10월 28일 12시에 지구의 종말이 와서 자기들과 신앙노선이 같은 사람만 천국으로 가고, 나머지는 지옥행이라고 한다. 또 한편으론 겁주고 자기들에게 동조하면 잘된다는 감언이설로 회유하는 등 판단능력이 약한 부녀자, 어린 청소년에 피해가 크다.

일반적으로 사회학자들은 사회가 혼란하고 희망이 없을 때 「망할 놈의 세상 끝장이나 나버렸으면…」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므로, 이런 이단종교가 세력을 확장해 나간다고 한다.

이제 60일후면 세상이 끝나는데 돼지값이 오

르면 어쩔고, 내리면 어떠하며, 앞으로 양돈산업의 살 길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이들의 눈으로 보면 불쌍하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학업을 포기하고, 재산을 바치고, 집단생활로 들어가게 되는가 보다.

이제 한국산 시한부 종말론은 동남아로 수출되어 국내외에서 10월 28일이면 함께 망할 사람들의 수가 상당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구 기독교 신자들은 내일 지구가 망한다 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자세인데, 2개월 후면 또는 1년 후면 망할텐데 그간 실컷 먹고, 마시며, 즐기다 죽자는 우리의 생각은 양극을 달리는 생각이다.

우리나라 농업, 축산업이 '97년 7월 1일이면 망한다는 시한부 종말론이 우리 업계에 깊숙히 파고들고 있다. 이러한 또하나의 시한부 종말론을 우리는 경계하여야 한다.

이웃 일본은 수입개방 계획을 수립하면서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한다. 죽을 때 죽더라도 사과나무를 심는다. 그리고 죽지 않을 방법을 강구한다. 종말론을 믿고 포기한다면 종말이 올 수밖에 없다.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

“

우리나라 농축산업이
 '97년 7월 1일이면 망한다는 시한부
 종말론이 우리 업계에 깊숙히 파고들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 금년말
 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타결될 것으로 보이는 쇠고기협상에서는 국내
 축산인들이 종말론에 빠지지 않고 희망을 주는 방향으로, 황영조
 선수의 마라톤에서 처럼 협상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상황을 반전시켜야 한다.

”

국제무역의 개방화라는 큰 흐름을 우리가 저지할 수는 없다. 이제 북한도 쿠바도 빗장을 열 수 밖에 없는 세상이 되고 있다. 또한 고립해서는 살 수도 없으며, 시장개방을 기정사실화 할 때 대응하는 길을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아예 대원군처럼 쇄국정책을 철저히 떠나가서 버티는 데까지 버티다가 옥쇄하는 길을 생각할 수 있다. 두째는 조금씩 개방해서 적응해가며 살아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셋째는 가능품목을 집중 지원하여 개방 후에도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마라톤이나 양궁에의 '집중투자'는 국제경쟁에서 승리의 메달을 땀으로, 우리가 농구나 단거리 육상 등에 투자하는 것은 현명치 못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런 면에서 양돈에 더욱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집중 투자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투자없이 쇄국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식민지화 밖에 갈 길이 없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 있다.

8월 27일부터는 한미간 쇠고기 협상이 있는데, 이번에는 정부대표와 생산자대표(축협)가 협상에 참여한다. 금년 말까지는 어떠한 형태로든 타결되겠지만, 국내 축산인들이 종말론에 빠지지

않고 희망을 주는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되기를 바란다.

미국측의 요구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상황이 밝지 못하지만, 우리 국민은 상황을 극적으로 뒤집는데 명수이기 때문에 대표단에 기대해 본다.

'79년 3김중에 금메달이 돌아갈 것으로 예측했지만, 당시 육군 소장이 상황을 반전시키었고, 최근 선정이 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되는가 했더니 사업권 반납으로 사태는 반전되고 있다.

이러한 반전보다는, 황영조 선수의 마라톤에서 처럼 막판 극적인 뒤집기로 금메달을 따듯이 협상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상황을 반전시켜야 한다.

이번 올림픽에서 보듯이 해외정보에 너무 어두워 탈락된 많은 종목들을 보면서, 최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돼지고기 냉장육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94년부터 개방될 돼지고기 냉장육 수입개방을 앞두고 철저한 준비와 더 피나는 땀을 흘려야 함을 생각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축산생산자재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 영세를 적용이 결정되어야 함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